

정애하는 천만년 높이 받들어 모시렵니다 김정은 원수님을



사 는 정 김 년 신

친애하는 동지들!

우리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과 조국력사에 빛나는 리정표를 아로새긴 승리자의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새해 2016년을 맞이합니다.

나는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열화같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사회주의조선의 영상이시며 주체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새해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나는 영원히 당과 주체의 한길을 걸어갈 억척의 신념을 안고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게 새해의 인사를 드리며 모든 가정들에 화목과 정이 넘쳐나고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기를 축원합니다.

새해를 맞으며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남녘의 겨레들과 해외동포들, 자주와 정의, 평화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외국의 벗들에게 인사를 보냅니다.

2015년은 뜻깊은 사변들과 경이적인 성과들로 수놓아진 장엄한 투쟁의 해, 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높이 떨친 승

리와 영광의 해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는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둘을 백두산대국의 자랑스럽고 의의깊은 혁명적경사로 빛내였습니다.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노도처럼 펼쳐나선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백두의 혁명정신과 과감한 군민협동작전으로 영웅적인 투쟁을 벌려 어머니당에 드리는 자랑스런 로력적선물들을 마련하였습니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와 청천강계단식발전소, 과학기술전당과 미래과학자거리,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을 비롯하여 당의 사상과 정책이 구현된 만년대계의 창조물들과 사회주의선경마을들이 수없이 일떠서 1년을 10년 맞잡이로 비약하며 전진하는 조국의 기상을 과시하였습니다.

우리의 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급속공업의 주체화에서 큰걸음을 내짚었으며 이르는 곳마다에 지식경제시대의 본보기공장, 표준공장들을 일떠세우고 생산공정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 실현하여 전반적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놓았습니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속에 하늘에서는 우리가 만든 비행기가 날고 땅속에서는 우리가 만든 지하전

동차가 달리는 자랑스런 현실이 펼쳐졌으며 사회주의바다향기, 과일향기가 넘쳐나 인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미더운 여자축구선수들을 비롯한 우리의 체육인들은 국제경기들에서 승리하여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떨치고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전투적사기를 더욱 북돋아 주었습니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성대하게 진행된 당창건 일흔둘 경축행사를 통하여 우리는 당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철통같이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과 주체조선의 양양한 전도를 만천하에 과시하였습니다.

10월의 경축광장에 펼쳐진 격동적인 화폭들은 핵폭탄을 터뜨리고 인공지구위성을 쏘아올린것보다 더 큰 위력으로 누리를 진감하였으며 일심단결과 총대를 필승의 무기로 틀어쥐고 투쟁하는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힘찬 진군은 그 무엇으로 써도 가로막을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국과 민족앞에 닥쳐온 전쟁의 위협을 막고 공화국의 존엄과 세계평화를 영예롭게 수호하였습니다.

(2면으로 계속)

신 김 년 정 은 사

(1면에서 계속)

적대세력의 엄중한 정치군사적도발책 등으로 하여 무력충돌로 치닫던 일촉즉발의 위기를 평정하고 전쟁이라는 재앙의 난파도속에서 조국의 존엄과 안전을 지켜낸것은 군민대단결의 거대한 힘, 백두산혁명강군의 무진막강한 위력이 안아온 빛나는 승리입니다.

지난해를 우리가 더욱 기쁜 마음으로 돌이켜보게 되는것은 주체혁명의 혈통, 신념의 대를 굳건히 이어가는 우리의 청년전위들이 당에 대한 충정과 영웅적투쟁으로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의 위용을 떨친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당의 품속에서 교양육성된 우리 청년들은 당이 정해준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폭풍쳐 내달리며 선군시대의 청년돌격정신과 청년문화를 창조하였으며 만사람을 감동시키는 훌륭한 미풍들을 발휘하였습니다. 수백만 청년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두리에 천결만결으로 뭉친 사상과 신념의 강자,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들로 역세계 자라난것은 우리의 더없는 긍지이고 자랑이며 커다란 승리입니다.

지난해의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백두의 녀과 기상을 안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마련된 결실이며 그것은 조국과 혁명에 바친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고귀한 피와 땀의 결정체입니다.

창조로 들끓고 기적으로 충만한 지난한해를 인민군인들과 인민들속에서 보내며 우리 당은 애국충정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그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와 견인불발의 투쟁모습을 가슴뜨겁게 목격하였으며 인민들과 병사들의 믿음에 찬 시선과 진정어린 목소리에서 더 큰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며 결사옹위하는 무적의 군대와 위대한 인민이 있기에 우리는 천만산악도 두렵지 않고 그 어떤 대업도 반드시 이룩할수 있다는것, 이것이 지난해 투쟁의 자랑스러운 총화입니다.

나는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필승의 신념을 안고 조선로동당의 위업을 헌신적으로 받들어 지난해를 영웅적투쟁과 위훈으로 빛내인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삼가드립니다.

동지들!
올해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해입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긍지높이 총화하고 우리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놓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력사적인 분수령으로 될 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어야 합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이것이 우리 당과 인민이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구호입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열기하여 세기를 주름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과시하여야 합니다.

경제강국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의 돌파구를 열자면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 부문이 총진격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려야 합니다.

전력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당적, 전국가적힘을 넣어야 합니다. 지금 있는 발전소들을 정비보강하고 만부하로 돌려 전력생산을 최대한 늘이며 단천발전소건설을 비롯하여 발전능력을 새로 더 조성하기 위한 투쟁과 자연에너지를 적극 리용하여 긴장한 전력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생산된 전기를 절약하고 효과있게 쓰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석탄공업부문에서 생산적양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려 화력발전소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석탄을 충분히 대주어야 합니다.

금속공업부문에 대한 국가적인 보장대책을 강하게 세우고 김철과 황철을 비롯한 금속공장들에서 주체화, 현대화의 성과를 확대하여 철강재생산을 늘여야 합니다. 철도운수부문에 규률을 강화하고 수송조직과 지휘를 개선하여 렬차의 정상운행을 보장하며 철도의 현대화를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은 인민생활문제를 천만가지 국사가운데서 제일국사로 내세우고있습니다.

농산, 축산, 수산부문에 혁신을 일으켜 인민생활을 개선하는데서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농업부문에 우량품종과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치며 영농공정별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 알곡생산계획을 반드시 수행하여야 합니다. 당의 부름

따라 일떠서고있는 축산과 수산부문에 생산을 빨리 장성시키고 전국도처에 건설한 양어장과 남새온실, 버섯생산기지가 은을 내게 하여 인민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하여야 합니다.

경공업부문에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원료, 자재보장대책을 세워 생산을 활기있게 내밀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명제품, 명상품들을 더 많이 내놓아야 합니다.

건설은 국력과 문명의 높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척도이며 우리 당의 인민적시책을 구현하기 위한 보람차고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건설부문에 당의 건설방침과 대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총공격전을 벌려 중요생산시설들과 교육문화시설, 살림집들을 시대의 본보기, 표준이 되게 최상의 수준에서 최대의 속도로 일떠세우며 건설의 대번영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투쟁목표를 통이 크게 세우고 내부예비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울리며 제품의 질제고와 설비, 원료자재의 국산화를 중요한 정책적문제틀어쥐고 힘있게 내밀어야 합니다.

전당, 전군, 전민이 떨쳐나 산림복구 전투를 본격적으로 벌려야 합니다.

도시와 농촌, 일터와 마을들을 알뜰하게 꾸리며 나라의 자원을 보호하고 대기과 강하천, 바다오염을 막기 위한 적극적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과학기술로 강성국가의 기초를 굳건히 다지고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쳐나가려는 우리 당의 결심과 의지는 확고합니다. 과학연구부문에서는 주체공업, 사회주의자립경제의 위력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며 최첨단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야 합니다.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과학기술보급실을 잘 꾸리고 운영을 정상화하여 근로자들이 누구나 현대과학기술을 배우도록 하며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사회적기풍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내각과 국가경제기관들에서 경제작전과 지휘를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근로자들의 무궁무진한 창조력과 현대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모든 부문을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나가는 원칙에서 경제사업을 혁신적으로 작전하고 완강하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조건이 불리하고 애로가 많을수록 경제발전의 중심고리를 정확히 찾고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면서

경제전반을 활성화해나가야 합니다.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조직전개하여 그 우월성과 생활력이 높게 발휘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공화국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정치사상진지를 억척같이 다져나가야 합니다.

사상을 혁명의 원동력으로 삼고 5대교양에 화력을 집중하여 전체 군인들과 인민들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뼈속깊이 새긴 사상의 강자들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그들이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불굴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온 나라가 양양된 정치적분위기로 세차게 끓어번지도록 정치사업, 화선식선전선동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일심단결은 주체혁명의 천하지대본이며 필승의 무기입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파놓은 심장을 당중앙위원회의 트랙에 이어놓고 당과 사상도 숭결도 발걸음도 같이하며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가야 합니다. 당조직들과 국가기관들은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를 구현하여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절대시하며 인민들의 정치적생명과 물질문화생활을 책임지고 끝까지 돌봐주어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민심을 틀어쥐고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일군들속에서 일심단결을 쪼먹고 파괴하는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도높게 벌려야 합니다.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져나가야 합니다.

인민군대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오중흥7련대청호쟁취운동을 발기하신 스무돛이 되는 올해에 전군을 당의 유일적령군체계가 확고히 선 혁명적당군,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않는 견결한 당의 군대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며 당이 제시한 4대강군화로선관철에서 전환을 일으켜나가야 합니다. 훈련의 실전화, 과학화, 현대화를 종자로 틀어쥐고 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모든 군인들을 김일성-김정일군사전략전술과 영웅적전투정신, 완벽한 실천능력을 소유한 현대전의 능수, 진짜배기싸움군들로 준비시켜야 합니다. 인민군대는 시대의 기수, 돌격대가 되어 당이 부르는 강성국가건설의 주요전구들마다에서 돌파구를 열어 제끼며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적극 찾아하여야 합니다.

(3면으로 계속)

신년 김정은

(2면에서 계속)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은 혁명의 수뇌부와 사회주의제도, 인민의 생명재산을 노리는 계급적원수들과 적대분자들의 준동을 맹아단계에서 짓몽개버리며 로농적위군과 붉은청년근위대 대원들은 전투정치훈련을 강화하고 향토방위를 위한 만단의 전투동원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군수공업부문에서 국방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수준을 더욱 높이며 군사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적들을 완전히 제압할수 있는 우리 식의 다양한 군사적타격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생산하여야 합니다.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높이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하고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지덕체를 겸비한 인재들을 키워내며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요구에 맞게 치료예방사업을 개선하여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적극 보호증진시켜야 합니다.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온 나라가 체육열기로 들끓게 하고 전문체육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국제경기들에서 영웅조선의 새로운 체육신화들을 창조해나가야 합니다. 문학예술부문이 들고일어나 천만군민의 심장을 혁명열, 투쟁열로 불타게 하는 시대의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합니다.

도덕기강을 세우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 온 사회에 건전하고 문명한 생활기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합니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펼쳐 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은 주체혁명의 핵심부대, 나라의 만아들답게 당의 사상과 위업을 맨 앞장에서 받들며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교조의 봉화를 추켜들고나가야 합니다. 농업근로자들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에 서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분발하여 농업생산에서 전변을 일으켜야 합니다. 지식인들은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눈부신 과학기술성파로 강성국가건설을 떠밀어나가며 로동당시대의 문명개화기를 열어나가는데서 선각자가 되고 기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오늘의 총진군에서 청년들

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있습니다. 청년들은 청년강국의 주인으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과 깊이 간직하고 조국을 떠받드는 역센 기동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며 강성국가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기적의 창조자, 청년영웅이 되어야 합니다.

일군들은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달고 모든 사업을 혁명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가며 인민을 위한 길에 한몸이 그대로 모래알이 되어 뿌려진대도 더 바랄것이 없다는 고결한 인생관을 지니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인민의 참된 총부, 혁명의 유능한 지휘성원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서로 돕고 이끌며 단합된 힘으로 전진하는 우리 사회의 본태와 대풍모를 적극 살려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표대는 주체의 사회주의 강국이며 사회주의의 위력은 곧 집단주의 위력입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국가적리익, 당과 혁명의 리익을 우선시하고 앞선 단위의 성과와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며 집단주의적경쟁열풍속에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합니다. 사대와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며 자강의 길만이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의 존엄을 살리고 혁명과 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자기의것에 대한 믿음과 애착, 자기의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강성국가건설대업과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반드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이룩하여야 합니다.

조국통일은 가장 절박하고 사활적인 민족최대의 과업입니다.

조국해방 일흔돛이 되는 지난해에 우리는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것을 호소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국통일과 북남관계개선을 바라지 않는 반통일세력들은 전쟁책동에 광분하면서 교전직전의 위험천만한 사태까지 몰아와 내외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남조선당국은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의 흐름에 역행하여 우리의 《체제변화》와 일방적인 《제도통일》을 로골적으로 추구하고 하면서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올해에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 이 구호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야 합니다.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북남관계와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우리 민족을 분열시켰고도 외세이며 우리 조국의 통일을 가로막고있는것도 다름아닌 미국과 그 추종세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은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모략소동에 매여달리면서 우리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를 외부에 들고다니며 청탁하는 놀음을 벌려대고있습니다. 이것은 외세에 민족의 운명을 내맡기고 민족의 리익을 팔아먹는 매국배족행위입니다.

북남관계와 조국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따라 민족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 민족에게 통일을 가져다주지 않으며 또 가져다줄수도 없습니다.

온 겨레는 반통일세력의 사대매국적인 외세와의 공조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합니다. 남조선당국은 민족내부문제를 외부에 들고다니며 《공조》를 구걸하는 수치스러운 행위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막고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것은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조건입니다.

오늘 미국의 침략적인 대아시아지배 전략과 무분별한 반공화국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 핵전쟁발원지로 되고있습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은 해마다 공화국을 반대한 대규모의 핵전쟁연습을 련이어 벌려놓으면서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격화시키고 북남관계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있습니다. 지난해 8월사태는 북남사이의 사소한 우발적인 사건도 전쟁의 불씨로 되고 그것이 전면전으로 번져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위험천만한 침략전쟁연습을 걸어치워야 하며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군사적도발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정을 위해 인내성있게 노력하는것은 우리의 일관한 립장입니다. 그러나 침략자, 도발자들이 조금이라도 우리를 건드린다면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무자비한 정의의 성전, 조국통일대전으로 단호히 대답해나설것입니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선언들을 비롯한 민족공동의 합의들을 귀중히 여기고 그에 토대하여 북남관계개선의 길을 열어 나가야 합니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선언들은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온 겨레는 그것이 하루빨리리행되어 통일의 전환적국면이 열리기를 바라고있습니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개선과 평화통일을 바라한다면 부질없는 체제대결을 추구할것이 아니라 민족의 총의가 집대성되어있고 실천을 통해 그 정당성이 확증된 조국통일3대원칙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존중하고 성실히 리행해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남조선당국은 지난해 북남고위급긴급접촉의 합의정신을 소중히 여기고 그에 역행하거나 대화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것이며 진실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마주앉아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것입니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내외 반통일세력의 도전과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이 땅위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기어 이 일떠세우고야말것입니다.

미국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환경을 마련할데 대한 우리의 공명정대한 요구를 한사코 외면하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에 계속 매여달리면서 정세를 긴장격화로 몰아갔으며 추종세력들을 내세워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에 미쳐 날뛰었습니다. 그러나 적들의 그 어떤 모략과 책동도 삶의 터전이고 행복의 보금자리인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빛내이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의지를 꺾을수 없었습니다.

적대세력의 도전은 계속되고 정세는 의연히 긴장하지만 우리는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한길을 따라 변함없이 나아갈것이며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책임적인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침략과 전쟁,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는 세계인민들과의 련대성을 더욱 강화하며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켜나갈것입니다.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은 필승불패이며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입니다.

모두다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갑시다.

희망찬 새해를 맞으며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축원합니다.

2016년의 꿈

새해가 밝아왔다.
 눈부신 변혁과 비약으로 수놓아온 송년의 자욱자욱이 못잊을 추억으로 새겨진 이 땅에 보다 큰 환희와 걱정의 래일을 그려주며 새해 2016년의 아침해가 두둥실 솟아올랐다.
 무릇 설날은 앞날에 대한 꿈과 희망이 강렬해지는 날이다.

하기에 사람들은 새해의 첫 아침에 품은 소망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며 가정마다 더 큰 행복이 깃들 래일을 꿈꾸는 것이다.
 나아가서 새해에는 나라가 더욱더 부흥해지고 그 전도가 더욱 휘황한 번영으로 엮여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새해는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민족에게나 다 찾아오지만 새해의 꿈이나 소망은 바란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저절로 실현되는 것도 아니다.
 불안정한 정치정세와 지속되는 경제침체로 약화일로로 걷는 나라들과 그칠새 없는 분쟁과 내란, 테러와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살길을 찾아 류량의 길에 오른 많은 나라와 민족들의 운명은 새해에도 비판적이고 절망적이다.

지난 한해 동안에만도 인민이 바라는 리상과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많은가.
 평양의 대동강반에 일떠선 미래과학자거리의 공화국의 인민들이 누리는 문명의 척도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고있다.
 근로하는 세상사람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살고 있지만 권력만능, 돈만능의 세상에서는 그것은 한낱 꿈일뿐이고 그 꿈을 이룬다는 것은 쉽지 않다. 남조선에서는 오늘도 전체 가구의 근 절반이 제집이 없어 남의 집에서 세방살이를 하고있으며 집안인 움막,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그것

이제는련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3포세대》라는 말이 《7포세대》라는 말로 뒤바뀌어졌다.

남조선의 청년실업자는 무려 116만명,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련애와 결혼, 출산뿐 아니라 희망과 꿈마저 포기하는 《7포세대》의 등장은 남조선사회전반의 위기로 되고있다.
 어제는 오늘을 비추어주는 거울이라 한다.
 날로 살기 힘들어 앞날을 포기하고 희망과 꿈, 지어는 목숨까지 버려야 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암담한 현실은 새해의 앞길에 어두운 그림자만을 던져주고있는 것이다.

하지만 공화국에서는 자기와 가정의 운명, 나라의 전도를 락관하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꾸며 살고있다.
 인민들속에서 널리 불리우는 노래 《조국찬가》 구절에도 있는 것처럼 공화국은 누구나 꿈을 꾸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나라이다.

지난 한해 동안에만도 인민이 바라는 리상과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많은가.
 평양의 대동강반에 일떠선 미래과학자거리의 공화국의 인민들이 누리는 문명의 척도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고있다.
 근로하는 세상사람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살고 있지만 권력만능, 돈만능의 세상에서는 그것은 한낱 꿈일뿐이고 그 꿈을 이룬다는 것은 쉽지 않다. 남조선에서는 오늘도 전체 가구의 근 절반이 제집이 없어 남의 집에서 세방살이를 하고있으며 집안인 움막,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그것

마지 없어 차디찬 거리의 구석구석과 다리밑에서 거적을 깔고사는 사람들도 헤아릴수 없이 많다. 기업들이 리윤을 위해 경쟁적으로 집을 짓지만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한갓 그림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행성의 해결할수 없는 난제로 되고있다.
 그러나 인민을 제일로 위해 주고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이 되고있는 공화국에서는 인민이 바라는 꿈과 리상이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되고있다. 불과 1년 사이에 대동강반에 황홀하게 솟아난 미래과학자거리의 궁궐같은 살림집들에서 행복의 금방석을 깔고 살고있는 주민들은 공화국의 평범한 교육자, 과학자들이다.
 수십억의 인구가 사용하고있는 인터넷휴폐지들에도 미래과학자거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계속 올라 대인기를 끌고 있다.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을 지향하는 공화국의 기상을 과시하며 평양의 대동강 축섬에 일떠선 과학기술전당도 누구나 마음껏 배움의 꿈을 꽃피울수 있는 과학기술보급기지이다. 이 훌륭한 배움의 전당에서 교육자, 연구사들은 물론이고 일반 주민들도 최신과학기술들을 마음껏 배울수 있으니 천도개벽된 축섬, 과학의 섬에서 인민들의 기쁨과 광만의 웃음소리가 이해에 끝없이 울려갈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하며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언제가 웅장하게 솟아올랐고 평양의 장천땅이 농장도시로 천지개벽하였으며 평양양로원이 일떠서고 원산육아원과 애육원,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이 아이들의 궁전으로 솟아올랐다. 수많은 공장들이 현대화되었으며 라선땅에는 전화위복의 기적을 창조하며 선경마을이 펼쳐졌다.
 어제는 미림땅에서 승마바람, 마식령에서 스키바람이 일고 문수물놀이장에서 행복의 웃음과도가 일어난지더니 오늘은 대동강물결위에 종합봉사선 《무지개》호가 등실 떠올라 사람들의 발걸음 그칠새 없다.
 그야말로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오늘과 래일이 다르게 비상히 놀라운 속도로 전변된 공화국의 2015년이다.
 한 나라, 한 민족의 번영과 발전은 령도자의 예지와 실력, 담대한 결심과 의지, 무한한 헌신과 로고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세상을 놀래우는 류례없는 기적을 련이어 창조한 공화국의 2015년의 자랑찬 행로에는 인민의 꿈과 리상을 최상의 경지에서 가장 빠른 시일안에 실현시켜주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의지가 맥맥히 굵이치고있다.
 새해정초부터 한해의 마감날까지 그이께서는 인민의 꿈을

하나둘 현실로 꽃피우시는 애민헌신의 장정을 끝없이 이어가시었다.
 지난해 1월 평양시버섯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당의 구호를 좌우명으로 삼고 자신과 함께 걸린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감으로써 뜻깊은 올해에 인민생활향상에서 전변을 가져오자고 약속하신 원수님이시다.
 그 결심으로 원산구두공장을 찾으시어 인민들이 신을 구두의 무게도 가늠해보시었고 평양화장품공장을 찾으시어는 화장품의 질을 높여 인민들이 다른 나라의 것이 아니라 《은하수》 상표를 단 우리의 화장품을 먼저 찾게 해야 한다고 당부하시었다.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하여 수산사업소들과 메기공장들을 찾아주시고 농장을 찾으시어는 수확고가 높은 먹이 작물시험재배가 성공한것이 것처럼 기쁘시어 사료풀의 이름을 《애국풀》이라고 명명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이의 불변불휴의 현명한 령도아래 하늘에는 자기 힘으로 만든 비행기가 날고 땅속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진 지하전동차가 달리게 되었으며 바다가에는 호못한 《이채어경》이 펼쳐졌다.
 매일과 같이 전변의 소식이 전해지고 아침에 들은 희한한 소식으로 인한 흥분이 채 가라

않기도 전에 저녁에는 또 다른 기쁨의 소식이 전해져 놀라움과 경탄을 자아낸 2015년이다.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보나 꿈이 이루어졌다는 소리, 소원이 풀리고 리상이 현실로 되었다는 소리가 온 나라에 울려 퍼졌다.
 공화국에서 다계단으로 일어난 2015년의 기적과 변혁을 목격하는 세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인상에 격찬을 금치 못했고 세계 연 5만여개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애민의 헌신의 자욱을 광범히 보도하였다.
 《령도자를 받들어 세계문명을 앞서나가는 기념비적 창조물들을 수많은 일떠세우며 건설의 대변영기를 안아온 조선의 천만군민》, 《조선에서의 기적은 김정은각각의 현명한 령도의 결실이다.》
 만사람이 동경하고 찬탄하는 김정은시대는 꿈과 같이 황홀한 시대, 사람들이 바라는 모든것이 다 이루어지는 신비한 시대, 인민의 모든 리상과 소망이 현실로 펼쳐지는 위대한 인민사랑의 시대, 전변의 시대이다.
 인민의 천만꿈을 꽃피워 주려는 것이 바로 회세의 정치가이신 그이의 리상이고 소망이다.
 절세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어 지나온 한해도 눈부시었지만 새해 2016년은 또 얼마나 휘황할 것인가.
 공화국은 밝아온 이 한해에도 걸출한 령도자를 모시어 더 높히 비약하게 될 것이며 인민의 꿈은 더 아름답게 꽃피어나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월



조국찬가

빛나라 이 조선 인민공화국
 그대를 영원히 사랑하리라
 이 땅에선 모든 꿈 이루어지리
 창공에는 우리 국기 무궁토록 나뭇기고
 심장을 바치자 이 조선 위해
 억센기상 하늘에 닿은 이 조선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그 모양
 부러움 없어라 아침의 나라
 슬기롭고 아름다운 조선의 모습
 구름우엔 참매 날고 목관꽃 핀 이 강산
 행복은 넘쳐라 인민의 조국
 금은 보화 가득한 전설의 나라
 그림같이 황홀하여 눈이 부신 땅과 바다
 누구나 소중한 그 품은 조국
 정든 고향집뜨락 조국이여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첫 걸음마 때여준

이 땅에서 새해의 아침은 어떻게 밝아오는가. 아이들의 행복넘친 노래소리로부터 밝아온다.

공화국에서 해마다 새해를 맞으며 불밝은 학생소년궁전의 드넓은 무대에서는 아이들의 설맞이공연이 펼쳐지곤 한다. 그 공연을 극장안에서, 혹은 TV에서 온 나라 인민이 다 보며 행복에 겨운 오늘을 생각하고 더 희망찬 새해의 앞날을 그려보기도 하였으며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위해 고마운 조국을 더 잘 받들어갈 마음속결의도 다지곤 하여 왔다.

지금도 잊을수 없다.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해마다 학생소년들이 준비한 설맞이공연을 친히 보아주시면서 잘한다고 박수도 쳐주시고 사랑의 한뼘에 안아 기념사진도 찍어주시던 그 나날들을.

그러던 1994년, 산천초목도 비분에 떨던 그해도 저물어가던 나날 아이들은 설맞이공연무대를 준비해놓고 이제나저제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나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께서 아이들 기다리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이 아니라 조국의 방을 지켜선 인민군군인들을 찾아가시었다.

그날 장군님께서 그이를 비우고 눈물을 흘리는 병사들에게 울지말라고, 평양에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설맞이노래를 부르고있다고, 동무들은 지금 총대로 그 노

래를 지키고있다고, 나는 어떻게 밝아오는가. 아이들의 행복넘친 노래소리로부터 밝아온다.

공화국에서 해마다 새해를 맞으며 불밝은 학생소년궁전의 드넓은 무대에서는 아이들의 설맞이공연이 펼쳐지곤 한다. 그 공연을 극장안에서, 혹은 TV에서 온 나라 인민이 다 보며 행복에 겨운 오늘을 생각하고 더 희망찬 새해의 앞날을 그려보기도 하였으며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위해 고마운 조국을 더 잘 받들어갈 마음속결의도 다지곤 하여 왔다.

지금도 잊을수 없다.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해마다 학생소년들이 준비한 설맞이공연을 친히 보아주시면서 잘한다고 박수도 쳐주시고 사랑의 한뼘에 안아 기념사진도 찍어주시던 그 나날들을.

그러던 1994년, 산천초목도 비분에 떨던 그해도 저물어가던 나날 아이들은 설맞이공연무대를 준비해놓고 이제나저제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나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께서 아이들 기다리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이 아니라 조국의 방을 지켜선 인민군군인들을 찾아가시었다.

그날 장군님께서 그이를 비우고 눈물을 흘리는 병사들에게 울지말라고, 평양에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설맞이노래를 부르고있다고, 동무들은 지금 총대로 그 노

학생소년궁전의 불빛 꺼지지 않는

다. 하기에 오늘도 아이들은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라며 눈물에 젖어 노래를 부르고있는것이다.

그 일이 얼마나 가슴에 맺히셨으면 말전 동화속의 궁전마냥 회한하게 개진된 만경대학생소년 궁전을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었으랴.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속에 일떠선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진하고보니 수령님과 장군님을 한 자리에 모시고 설맞이공연을 진행하였으면 얼마나 좋으랴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것만 같다고, 만경대학생소년궁전 개진은 참으로 방대하고 어려운 공사였지만 아이들의 밝은 웃음과 행복을 지키는 중차대한 사업이고 오늘에 올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최후승리의 함성으로 이어지는것이기엔 당에서는 천만금을 아끼지 않았다고...

아이들을 제일로 위하시며 세상 어디에도 없는 훌륭한 아이들의 궁전인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도 더욱 현대적으로 일떠세워주시고 도처에 육아원과 애육원도 세워주시며 이 세상 모든 기쁨과 행복을 아이들에게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 계시어 오늘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온 나라에 울리고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는 행복넘친 아이들의 설맞이노래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리고있다. 2016년의 이 첫 아침에도.

본사기자 김강철

방문기 교육자가정에 넘치는 기쁨과 행복

송년의 밤 어느 가정에서나 노래소리, 웃음소리 울려 퍼졌다. 과학자, 교육자들이 행복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며 미래과학자거리의 창가 들마다에서도 밤새 불빛이 꺼지지 않았다.

이 거리의 궁궐같은 집에서 사는 김책공업종합대학 재료공학부 교원인 교수, 박사 고영철선생의 집을 찾았을 때 온 가족이 모여앉아 웃음꽃을 피우고 노래를 부르고있었다.

우리를 반갑게 맞이한 고영철선생은 자식들의 자랑을 듣고있던 중이라며 방안으로 이끌었다.

선홍색로복장의 책임부원으로 일하는 아들은 울해 많은 식료품들이 생산되어 인민들에게 공급되었다고 하면서 자기가 일하는 공장이 전국의 앞장에 섰다고 말하였다. 평양시 중구역직매점에서 지배인으로 일하고 있는 며느리도 인민들에 대한 봉사를 더 잘 하기 위해 애쓴 한해의 일들을 자랑삼아 이야기하였다.

자기 가정에 깃든 긍지와 행복을 담아 부르는 손자, 손녀들의 명랑한 노래소리를 들으며 꿈같은 행복을 받아안은 한해를 돌이켜보는 고영철선생의 눈가에는 물기가 어려있었다.

고향이 제주도인 그는 남조선사

회와 일본땅에서 지지리 천대받으며 살아온 지난날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공화국영웅이며 조국통일상수상자인 고진히동지의 동생인 조국통일상수상자인 고봉효의 둘째아들로 일찌기 부모의 사랑이란 모르고 자란 그의 고향 많은 이야기는 들을수록 감동적이었다.

혈혈단신으로 공화국의 품에 안긴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행복의련속이었다고 그는 말하였다. 은혜로운 조국의 품속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오늘은 교수, 박사로 세자식과 손자, 손녀들을 둔 가장으로서 단란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있는 고영철선생이다.

하기에 그는 키워주고 내세워준 나라의 은덕에 최첨단과학연구성과로 보

답할 일념을 안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철저히 요구하는 합금강생산을 국산화하기 위한 연구사업에서 큰 성과를 이룩하여 경제강국건설에 이바지하였다.

그런 그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영광의 대회장으로 불러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었다. 얼마전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은정속에 황홀하게 꾸려진 미래과학자거리에 보금자리를 펴게 되었다.

그의 집을 찾았던 한 외국인은 이런 회한한 집은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돈 많은 사람들이나 살수 있다가, 평범한 교육자가 산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고 놀라움과 부러움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후대들을 키우는 교육자들을 위해서라면 아까울것이 없다시며 평범한 교원에 불과한 자기에게 이렇듯 크나큰 행복을 안겨주시고 멀리 있는 자식들과 함께 생활하고 싶어하는 말 못할 사연까지 헤아려준 친어머니사랑에 격정의 눈물을 흘린 고영철선생과 그의 가족들이다.

과학자, 교육자들에 대한 사랑은 아담한 서재에도 산뜻한 식사실과 시원한 공동살림방에도 그대로 어리여있었다.

앞으로 더 많은 과학연구성과를 이룩하여 나라의 은덕에 보답하겠다고 말하는 고영철선생의 집을 나서는데 보다 휘황찬란한 래일을 약속하듯 희망찬 새해의 종소리가 울리고있었다.

본사기자 류현철



오른발로 이 땅을 먼저 디딜가
왼발로 이 땅을 먼저 밟을가
조국아 목매여 찾고찾으니
눈물이 나보다 먼저 내리요
...

꿈결에도 그리던 어머니조국에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제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 성원들의 심정을 담은 노래의 한 구절이다.

조국의 학생소년들과 함께 설맞이공연에 참가하는 제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 성원들은 이번 설맞이공연무대에 무용이야기 《조선학교학생의 일기》를 준비하였다.

언제면 가볼가 손꼽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리운 조국이며서 발보다 먼저 눈물방울을 떨구며 조국땅을 밟은 제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 성원들.

조국에서의 뜻깊은 설맞이공연에 참가하기 위해 일본 각지에서 온 제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 성원들속에는 총련 도교조선중고급학교 3학년에 다니는 김유이학생도 있다.

무용이야기 《조선학교학생의 일기》에서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김유이학생은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난생처음 조국에 왔다.

그런 그의 눈에 처음으로 비친 조국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그에 대해 김유이학생은 무엇이든 선침으로 우리를 위해 주고 내세워주는 따뜻한 사랑

과정을 느꼈다고 말한다.

심길웅 총련 도교조선중고급학교 교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일본땅을 떠나기 전에 조국에 가면 자기들을 어떻게 대해주는가고 나에게 묻는 학생들이 많았다. 그때마다 <너희들이 직접 가서 온몸으로 느끼고 체험해보라.> 고 말해주었다.》

그때는 미처 알수 없었던 그

이전의 궁전도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때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회한하게 꾸려졌으니 어찌 그렇지 않았겠는가.

김유이학생은 여기서 배우려면 돈을 얼마나 내야 하는가고 묻기까지 하였다. 남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전반적무료의 무교육이 조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실시되고있다는것을 알고있었지만 이처럼 훌륭한

기해주었다.

격정말아 애들아, 이역땅의 너희들을 위해서도 이 궁전의 대문은 활짝 열려져있단다.

우리 원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제일동포들은 어머니조국과 한피줄을 잇고사는 친형제, 한집안식솔이라고.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활짝 꽃피는 이 가슴뜨거운 현실앞에서 김유이학생만이 아닌 예술단성원들은 아이들은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이고 희망과 미래의 전부이라고 하시며 하나를 주시면 열백을 더 주고 싶으하시는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다심한 사랑이 사무쳐와 가슴뜨거움을 금치 못하였다.

하기에 예술단성원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건만 뜻깊은 조국방문의 나날에 받아안은 자기들의 흥분된 심정을 일기에 또 박도박 적어나갔다.

그리고 설맞이공연무대에 일기를 써나가는 자기들의 생활을 담은 무용이야기 《조선학교학생의 일기》를 내놓게 되었다.

설맞이공연의 한 종목인 무용이야기 《조선학교학생의 일기》,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으뜸인 사회주의조국과 영원히 한피줄을 잇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평도따라 총련의 대, 애국의 대를 곳곳이 이어갈 나 어린 심장들이 웨치는 불타는 맹세그대로였다.

본사기자 강류성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체육인들의 가슴가슴은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있다.

돌이켜보면 뜻깊은 지난해에 람홍색공화국을 세계의 창공높이 휘날려 주체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쳐온 자랑스러운 체육인들이다.

지난해 1월 김혜경선수가 제15차 아시아마라손선수권대회와 2015년 홍콩마라손경기대회에서 단연 우승한것으로부터 지난해의 마지막달까지 나라와 민족의 국력과 정신력의 대결장에서 공화국의 존엄을 걸고 싸워이긴 장한 체육인들의 경이적인 성과들로 하여 날과 달을 이어 온 나라가 기쁨과 환희로 들끓었다.

미더운 여자축구선수들이 2015년 동아시아축구맹 여자동아시아컵경기대회에서 또다시 영예의 금메달을 안아올린데 이어 나아린 여자축구선수들도 2015년 아시아축구맹 16살미만 여자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쟁취하는 자랑스러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공화국의 김국향선수가 10대의 어린 나이에 제16차 국제수영맹 세계선수권대회 물에뛰어들기 여자 10m고정관경기에서 단연 우승하여 국내 첫 세계패권자가 될 때 태권도선수들도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 참가력사상 열다섯번째의 종합 1위라는 뜻깊은 년륜을 아

로새기었다.

어찌 그뿐이랴. 지난해 공화국의 리세광선수는 제46차 세계기체체조선수권대회 남자조마운동경기에서 또다시 창공높이 휘날려 주체조선의 우승하여 2중세계선수권보유자의 영예를 지니었다.

력기선수들인 엄윤철, 김은국, 리성금선수들도 2015년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서 련이어 1위를 쟁취하였다.

청소년체육학교 학생인 원은경선수는 처음으로 출전한 국제경기인 2015년 세계청소년 및 청년여자권투선수권대회 청소년 46kg급 경기에서 단연 패권을 틀어쥐었다.

지난해 체육부에서 이룩한 성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체육중시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다시금 확증해주고있다.

새해에도 공화국의 선수들은 수많은 국제경기들에 참가하게 된다. 지금 선수들과 감독들은 주제 105(2016)년에 더 높은 경기성으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이해를 커다란 성과로 빛내일 열의에 넘쳐있다.

3중세계선수권보유자 엄윤철 선수는 《력기선수생활을 끝마칠 때까지 경기마다에서 금메달을 쟁취하려고 한다. 다른 선수가 금메달을 향해 뛰어간다면 나는 날아가겠다.》고 말하였다.

본사기자 홍범식

새해에 더 많은 기쁨과 행복을

설맞이무대에 펼쳐진 《조선학교학생의 일기》



김유이학생

말의 의미를 김유이학생은 조국땅에 첫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날마다 시간마다 온몸으로 절감하였다고 한다.

정이란 무엇인지, 사랑이란 무엇인지 아직은 다는 알지 못하는 어린 김유이학생에게 있어서 조국은 낯아낀 친부모의 모습그대로였다. 바람세찬 이역땅에서 자라나나 그리운 조국을 찾아온 어린 학생들을 어머니조국은 따듯이 품어안아 보살펴주었다.

소문으로만 듣던 어머니조국의 모습은 또 얼마나 회한했는가.

그중에서도 세상에 돌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으로 웅장 화려하게 변모된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돌아보면서 김유이학생은 연방 탄성을 터치었다.

교육환경속에서 배우다는것을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본땅에서 살고있는 그였는지라 저도 모르게 이런 물음이 튀어나왔던것이다.

조국학생들을 부러움에 넘쳐 바라보며 자기도 여기에서 마음껏 배우고싶다고 발을 동동 구르는 그에게 교원들은 이야

주제 105(2016)년 새해가 밝았다.

언제나 새해는 사람들에게 밝아온 한해에 대한 부푼 꿈과 희망을 안겨준다. 누구는 시작되는 새해에 새 꿈과 포부를 엮기도 하고 누구는 이루지 못한 소원이 이 한해에는 성취되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그 꿈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 보다 높은 각오, 새로운 결의도 다진다.

하다면 밝아온 이해에 우리 겨레가 소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70년이 지나도록 아직 이루지 못한 통일일 것이다. 통일은 분열의 고통속에 사는 겨레 모두가 언제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고 이해도 례의가 아니다.

홀려간 2015년은 조국해방 70돐, 민족분열 70년이 되는 해여서 겨레의 통일념원은 더욱더 강산에 사무쳤었다.

민족의 이 열망을 담아 공화국은 북남관계의 개선과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기 위해 모든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으나 북남관계는 이렇다할 뚜렷한 결실을 이루지 못하였다. 대결의 악순환속에 전쟁직전까지 갔던 북남관계가 완화와 화해의 방향으로 돌아서기는 하였으나 모처럼 마련된 북남당국회담도 남측의 무성의한 태도와 대결적인 자세로 하여 아무런 결실없이 끝남으로써 겨레에게 큰 실망만을 안

겨주었다. 온 겨레의 념원에 맞게 북남관계를 개선해나가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이 《체제통일》의 망상에 사로잡혀 외세와 함께 동족을 위협하는 합동전쟁연습을 년중 실재없이 벌리고 동족대결의 뼈라살포와 반공화국 《인권》소동에만 혈안이 되어온 남조선당국의 행위는 통일의 앞길에 장애를 조성하고 전쟁위험만 고조시키는 위험천만한 행위가 아닐수 없다.

지나온 한해는 온 겨레가 반통일호전세력의 전쟁대결책동을 짓부셔버려야 민족의 화해와 자주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나갈수 있다는 심각한 교훈을 새겨주고있다.

밝아온 2016년은 민족분열 71년이 되는 해이다.

이제 대결과 분열의 비극을 더이상 지속시킬수 없다. 조선민족에게 있어 통일은 애국이고 분열은 매국이다.

남조선당국은 온 겨레의 규탄을 받는 동족대결정책을 하루빨리 련북화해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통일의 앞길에는 의연험난한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있지만 민족이 뜻과 힘을 합치면 못해낼 일이 없다.

2016년에 온 겨레는 자주통일대행진을 더욱 힘차게 벌려 나라의 통일위업수행에서 새로운 전기를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본사기자 최광혁

새해 2016년을 맞으며 공화국의 여러 출판사들에서는 다종다양한 달력, 년력 등을 내놓았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끄는 달력의 하나가 통일달력이다.

그 달력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꽤나 높았다. 어느 한 매대에서는 부부인듯 한 한쌍의 남녀가 여러 달력들중에서 통일달력을 특별히 골라 사들고 가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배경으로 《6.15통일시대》라는 글이 시원스레 씌워져있는 통일달력, 달력의 첫장을 번지니 나의 눈앞에는 통일의 아침을 부르는 백두산의 붉은 해돋이를 맞이한 남녘동포들의 기쁨에 찬 모습이 안겨왔다. 백두의 해돋이를 바라보며 감격에 겨워 만세를 부르는 남녘인민들, 귀기울이면 그날의 합성이 들려오는것만 같은 가슴벅찬 순간이었다.

펼치면 펼칠수록 통일달력의 매 장마다에는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정녕 잊을수 없는 6.15통일시대의 환희로운 순간들이 가득차있었다.

절세위인에 대한 흥미의 정을 토로하는 남녘의 청년학생들,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남녘의 대표단성원들, 자주통일의 의지를 굳게 다져가는 북남로동자들이며 힘도 마음도 하나로 합쳐 바줄당기기를 하는 북남녀성들의 모습들이 어제런듯 생생히 담겨있는 새해의 통일달력.

북과 남이 따로없이 한데 어울려 통일렬차가 되어 달리

수 필 통일달력을 펼치며

은 통일행사장의 장면이며 우승의 기쁨을 안고 달리는 북녘의 너자축구선수들에게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는 남녘의 관중들.

달력을 번지며 나는 6.15공동선언에 천명된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아래 이 땅우에 펼쳐졌던 6.15통일시대를 돌이켜보았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의 채택은 불신과 대결의 긴긴력사가 흐르던 이 땅에 환희로운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민족사적사변이었다.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합성이 온 삼천리를 진감하는 가운데 활짝 열린 하늘길, 땅길, 바다길을 따라 북에서 남

으로, 남에서 북으로 민족공조의 통일대하가 도도히 흐르는 격동적인 사변들이 펼쳐졌던 6.15통일시대.

분렬이래 처음으로 북남로동자통일행사와 북남농민통일행사도 열리고 북남청년학생통일대회, 북남녀성통일대회 그리고 북남교육자대회와 민족작가대회를 비롯한 북과 남의 계층별 통일행사들이 련이어 열려 온 삼천리가 통일의 도가니로 끊었다.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경제인, 언론인, 문화인, 종교인 할것없이 각계층의 수많은 사람들이 북과 남을 오가며 우리 민족은 퍼줄도 하나, 얻어도 하나, 문화도 하나, 력사

도 하나임을 가슴뜨겁게 절감했다.

통일달력의 마지막장을 덮으며 나는 생각했다. 6.15통일시대의 감격과 환희는 절대로 추억으로만 남아있어서는 안된다. 내외반통일세력의 대결책동이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지만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을 진두에서 이끄시는 절세위인의 현명한 령도와 통일을 일일천추로 념원하는 북과 남, 해외 온 겨레의 힘찬 투쟁이 있기에 제2의 6.15통일시대는 반드시 이 땅우에 펼쳐진다고.

새해를 맞아 통일열망에 더욱 불타는 겨레에게 조국해방 71돐이 되는 2016년에는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안아와야 한다고 통일달력은 속삭여주는 듯싶었다.

김수민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사의 갈피마다에는 겨레의 통일열망을 담고 통일에국운동을 고무추동한 수많은 통일노래들이 기록되어있다.

그중에는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북남공동선언발표이후에 태어난 뜻깊은 노래 《우리는 하나》도 있다.

하나 민족도 하나 하나 퍼줄도 하나 하나 이 땅도 하나 돌이 되면 못할 하나 긴긴 세월 눈물로 아픈 상처 왔으며 통일의 환희가 파도쳐 설레이네 하나 우리는 하나 태양 조선 우리는 하나 ...

황진영선생이 작사, 작곡한 이 노래는 퍼줄도 하나, 문화도 하나인 조선민족이 일치단결하여 통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성의있는 노력 (15)

겨레의 통일념원 노래에 담아

일의 날을 기어이 앞당겨 오려는 겨레의 통일열망을 뜨겁게 반영하고있는 것으로 하여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의 열렬한 공감속에 널리 불리워지고있다.

이 노래가 온 겨레의 심장마다에 대하처럼 흘러들기까지에는 민족의 통일념원을 알기 쉬우면서도 심오한 철학성이 담겨있는 시어들과 2부분형식으로 구성된 선율이 담도록 하고 여기에 약동적인 리듬과 약박, 이강음과 같은 수법들을 재치있게 결합한 자유로운 음진행 등을 손색없이 조화시키도록 한 공화국의 성의있는 노력이 깃들어있다. 분렬력사상 처음으로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이 이루어진 직후 6.15의 통일열풍이 강산을 휩쓸던 주체90(2001)년 7월 10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한 일군을 몸가까이 부르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급히 달려온 일군을 반갑게 맞아주시며 그에게 자신께서 오늘 특별과업을 주려고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잠시 사이를 두시었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뜻밖에도 악보 하나를 꺼내놓으시며 이번에 보친 보전자악단의 작곡가동무가 노래 《우리는 하나》를 창작하였는데 노래가 잘되었다고, 특히 가사가 아주 좋다고 말씀하시

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노래가사에 있는 민족도 하나이고 퍼줄도 하나이며 몽치면 하나이고 돌합치면 더 큰 하나라는 표현들은 철학적깊이가 있는 표현들이라고 하시면서 영문을 몰라하는 일군에게 인민군공훈합창단에서 노래 《우리는 하나》를 합창으로 잘 형상하여야 하겠다고 하시었다. 그러시고는 노래의 형상방안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었다. 이렇게 되어 다음해인 주체91(2002)년에는 이 노래가 념성독창과 남성합창으로 손색없이 형상되어 나오게 되었으며 나오자마자 온 겨레의 심장을

들어잡았다.

하나 소원은 하나 하나 애국은 하나 하나 몽치면 하나 돌합치면 더 큰 하나 찬란한 태양이 삼천리를 비치여 통일의 아침이 누리에 밝아오네 하나 우리는 하나 태양 조선 우리는 하나

이렇듯 송고한 통일애국의 뜻이 어린 공화국의 세심한 조치들이 있었기에 민족의 통일성업에 이바지할수 있는 노래 《우리는 하나》가 태어나게 되었었던것이다.

통일노래가 창작된것은 이뿐이 아니다. 이

미전부터 《조선은 하나다》, 《통일무지개》를 비롯한 많은 통일노래들이 창작되었으며 뜻깊은 《90송년 통일음악회》가 진행된 기간에는 북과 남의 음악단 단장들이 북남전체 조선인민의 통일의지를 합쳐 공동작곡한 의의있는 노래 《통일의 길》이 울려 퍼졌었다.

삼천리강산에 통일의 환희가 파도쳐 흐르던 격동적인 나날들에 노래 《통일 6.15》,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가 북에서 울려 퍼져 온 겨레를 자주통일대행진으로 힘있게 떠밀어주었다.

오늘도 북과 남, 해외의 동포들이 만나면 함께

부르고 경쾌한 그 선율이 맞추어 통일의 종착점을 향해 어깨걸고 춤을 추며 나아가는 《통일렬차 달린다》도 수십년전 공화국에서 만들어진 노래이다. 민족이 세기를 이어 줄기차게 벌려온 통일운동은 《통일렬차 달린다》의 노래구절처럼 온 겨레가 통일렬차가 되어 힘차게 달려온 애국운동이었다.

아직 외세가 강요한 군사분계선의 철조망이 조선훈도의 허리를 가로질러 겨레는 오도가도 못하지만 통일노래는 겨레의 마음속에서, 통일행사장들마다에서 울리고 그 노래높이 부르며 우리 민족은 신심드높이 통일을 마중가고있다.

희망찬 2016년에도 겨레의 통일열망실고 통일노래는 더 높이 울려갈것이다.

본사기자 현은경



새 해 를 축 하 합 니 다

희 망 찬 새 해 를 맞 으 며
 해 내 외 동 포 여 러 분 의
 건 강 과 가 정 의 행 복,
 통 일 애 국 사 업 어 서 의
 성 과 를 바 랍 니 다 .

통 일 신 보 편 집 국

주 체 105 (2016) 년 1 월 1 일



◎ 평양시간으로 2016년 새 아침이 밝았다 ◎

주제105(2016)년 1월 1일 0시!
평양과 신의주, 함흥을 비롯한 온 나라 곳곳에서는 희망찬 새해 2016년이 밝아왔음을 알리는 제야의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리었다.
그 종소리와 더불어 흘러온 2015년의 격동적인 사변과 행복넘친 생활들을 추억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기쁨과 환희에 젖어있었다.
2016년은 새로운 평양시간에 맞추어 밝아온 첫해여서

더욱 의미깊다.
지난해에 공화국에서는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서 빼앗았던 시간을 되찾는 사변적인 조치가 취해졌다. 평양시간의 제정이 그것이다.
돌이켜보면 총칼로 조선을 짓밟은 일제는 1912년 1월 1일부터 동경 135°를 기준으로 하는 저들의 시간을 쓰도록 우리 겨레에게 강요하였다.
그로부터 한세기가 흐른 2015년 8월 조국해방 70돐을 맞으며 새로운 평양시간

을 제정할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동경 127° 30'을 기준으로 하는 시간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표준시간으로 정하고 평양시간으로 명명한다.》가 발표되었다. 일제잔재의 오물을 쓸어버리고 민족의 존엄을 되찾는 경사를 맞이하는 뜻깊은 순간이었다.
민족의 넘과 기개가 도도히 흐르는 평양시간에 맞춰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으며

더욱 기세차게 달리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몰라보게 변모되며 기적과 변혁의 한해를 수놓아온 공화국이다.
환상의 세계를 재현한듯 쑥섬에 과학기술전당이 훌륭히 일떠섰고 불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과학중시, 인민사랑의 정치가 그대로 응축된 미래과학자거리가 웅건하게 솟아났다. 평양메기공장, 원산구두공장,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이 국산화된

현대화의 본보기, 표준공장으로 변모되어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이 사회주의 농촌문화건설의 본보기로 천지개벽되었다. 대동강에 사회주의문명을 과시하며 종합봉사선 《무지개》호가 두둥실 떠다니고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가 자기 모습을 일신할 때 하늘에서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든 경비행기가 날고 지하에서는 자강력의 산물인 지하철동차가 기

운차게 달리게 되었다.
평양시간과 더불어 터져오른 황홀한 축포는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에게 더욱 희망찬 새해, 격동과 변혁의 2016년을 예고해주고있다.
미국의 끊임없는 제재와 압살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며 공화국은 앞으로도 자주와 존엄의 평양시간에 맞추어 조선식문명강국건설의 아름다운 역사를 행성에 수놓아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고영숙

흥성이 는 축하장 기념품 상점

새해를 맞을 때마다 멀리 떨어져있는 부모님들과 존경하는 스승, 친척, 친구들에게 축하장을 보내는것은 즐거운 설풍경의 하나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각지의 축하장기념품상점들도 어느때없이 많은 사람들로 흥성이고있다.
평양역앞에 위치한 평양축하장기념품상점에서 새해를 맞으며 17종에 달하는 각종 축하장들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봉사해주고있다.
이곳에서 봉사하는 새

해축하장들에는 민족의 성산 백두산과 천하절경 금강산을 형상한 축하장들이 있는가 하면 조선의 국수 소나무와 국조 참매를 형상한 축하장들, 미래과학자거리의 눈부신 축포야경과 세계가 경탄하는 인민의 집 문수물놀이장, 대동강반의 칠색명룡한 별천지 《무지개》호를 형상한 축하장들, 조국강산을 푸르게 할애국의 마음을 안고 나무를 심는 모습을 형상한 축하장들도 있다.
그런가하면 동심에 맞

게 감쪽한 동물들을 형상한 축하장들과 아름답고 화려한 꽃들을 형상한 축하장들, 대동문과 련광정, 평양종과 같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슬기로운 문화를 보여주는 축하장들도 있다.
축하장기념품상점을 찾는 사람들은 제각기 기호와 취향에 맞는 축하장들을 고르기도 하고 축하장을 보낼 대상에게 어떤 형식이 맞는지 봉사자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한다. 때로는 함께 온 친구들과 축하장을 고르며 의

견이 맞지 않아 즐거운 다름도 벌어지곤 한다.
이곳을 찾은 우리는 여러개의 축하장들을 사들고 고향에 계시는 그리운 부모님들과 정다운 모교의 스승들의 모습을 눈앞에 그리며 새해인사를 써내려가는 김책공업종합대학에 다닌다는 한 대학생의 모습을 볼수 있었다. 그런가하면 세포지구축산기지건설장에 달려나가 보람찬 청춘시절을 위훈으로 수놓아가고있는 애인에게 보낼 축하장을 사들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처녀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이곳 축하장기념품상점의 안윤옥 책임보급원은 명절날, 기념일마다 축하장을 팔아주고있는데 손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고, 새해를 맞으며 축하장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손이 미처 돌아가지 못할 정도라고 웃으며 말하였다.
예로부터 문명하고 레의도덕이 밝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을 이어이 땅에 꽃피어나는 교상하고 아름다운 새해맞이풍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도 즐거웠다.



주제105(2016)년 새해우표가 나왔다

주제105(2016)년 새해를 맞으며 국가우표발행국에서 우표를 발행하였다.
우표는 평양육아원을 배경으로 색동옷을 떨쳐입은 어린이들이 눈사람만들기, 연피우기, 팽이치기와 같은 다채로운 민속놀이를 하며 즐겁게 뛰여노는 모습을 함박눈이 내리는 설풍경속에 형상하고있다.
우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높아 온 나라가 밝아진다고 하시며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따오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속에 모든 어린이들이 세상에 부러울것없이 행복하게 자라는 공화국의 앞날은 끝없이 창창하다는것을 생동한 화폭으로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새해에 서로가 잘되기를 바라는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이웃간의 화목을 도모하여왔다.
이 덕담습이아말로 화목하게 살기를 좋아하는 우리 민족의 미풍량속이라고 볼수 있다. 가정들에서는 서로 사랑을 보내며 덕담을 교환하기도 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과는 서신으로 덕담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새해에 상대가 반가와 할 말을 들려주면 듣는 사

람에게 기쁨과 용기를 안겨준다고 한다. 희망찬 말속에서 자신을 얻고 막힌 일도 풀리고 용기도 생기게 하는 덕담은 우리 민족에게서 전통화되어온것이다. 오늘날에 와서 덕담은 서로의 사업과 생활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라는 《새해를 축하합니다.》, 《새해에 건강하여 통일애국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등의 친근한 인사말을 나누는 것으로 계승되고있다. 또한 친구들사이에 《새해에는 소원을 성취하기 바라네.》 등의 인사말이 있으며 웃사람이 아래사람의 인사를 받을 때에는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과학연구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라네.》, 《올해에도 가정의 화목을 바라네.》 등의 인사말이 있다.
본사기자